

# 맨발 갯벌걷기·맨손 낙지잡이 즐겨요

### 21~23일 '무안황토갯벌축제'

#### 해제면 황토갯벌랜드 일원서

#### 물놀이·요리체험 등 행사 풍성

정장 무안 갯벌에서 펼쳐지는 '제10회 무안황토갯벌축제'가 21일부터 23일까지 전남 무안군 해제면 황토갯벌랜드 일원에서 열린다.

무안황토갯벌축제는 생명을 품고 사람의 삶과 함께한 정장 무안 갯벌의 가치와 영양가 풍부한 무안 황토에서 생산한 농수특산물을 알리기 위해 2013년 처음 개최됐다.

올해 축제는 무안의 황토와 갯벌의 생태환경적 가치를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교육의 장이자 오감을

자극하는 체험과 건강한 먹거리, 검은 비단 갯벌의 장관을 체험할 수 있는 알차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황토갯벌랜드는 대한민국 습지보호지역 1호, 람사르 습지 1732호이자 전남도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생태공원·생태갯벌과학관·해양안전체험관 등으로 꾸며져 있고 검은비단 갯벌의 가치를 홍보하고 다양한 체험과 교육의 장으로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의 선두주자인 무안황토갯벌의 가치를 배우고 생태를 지키기 위해 3명(물멍, 뽕명, 불명) 찰린지, 캠프와 피크닉의 만남 캠프, '황토갯벌 맨발걷기', '플로깅', '별바다 여행'으로 방문객에게 따뜻한 감동을 선사할 계획이다. 갯벌체험장에서는 꼼꼼함을 손맛이 느껴지는

낙지·장어잡기, 농게잡이체험, 낙지광장의 물놀이 존에서는 디제이(DJ)와 함께 신나는 댄스와 물싸움 놀이, 황토미끄럼틀과 황토 마사지, 무안 양파 감지 담기 등 요리체험 등이 마련됐다. 어르신들을 위한 나만의 고무마 막걸리, 에이드, 하이볼, 갯벌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친환경 전기기차 등이 색다른 체험거리도 즐길 수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무안의 황토와 갯벌은 가족, 연인, 친구 모두가 잊지 못할 추억의 시간여행을 선사하고 찾아오는 이들이 실감 만족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끝마쳤다"며 "가벼운 마음으로 오셔서 무안에서 생애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말하고 말은 거느' 살아있는 갯벌의 무한한 감동을 느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영암 농업인들과 우수회 영암군수가 최근 일본 히로시마현 '스마트 농업' 선진지를 찾아 농업기술을 살펴본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영암군 제공>

## 영암 농부들 3박 4일 일본 히로시마 연수

### 스마트 농업·6차 산업 현장 견학

영암 농부들이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히로시마현을 찾아 '스마트 농업'과 '6차 산업'을 배웠다.

영암군과 한국농어촌공사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건립'과 '6차 산업 발전'을 위한 농업인 연수를 최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연수단에는 우수회 영암군수와 청년 농부, 신중년 농부, 공직자 등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농업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선진 농업 기술을 살펴봤다.

연수단은 일본 농림수산성, 협립 농업기술센터

와 '스마트 농업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이어 아키타정과 히데팜 스마트 농업 실증프로젝트 현장을 견학했다.

농산물 생산에 그치지 않고 가공, 유통, 판매를 겸한 6차 산업의 상징인 '안테나숍'과 히라타 관광농원·세라정 등 성공 사례도 찾아봤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연수는 임대형 스마트팜 구축과 6차 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청년 농부와 신중년 농업인이 이번 배운 농업기술을 토대로 지역 농업현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 해남군 우수영 5일 시장 인근 '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

해남군은 '1호 골목형 상점가'로 '우수영 5일 시장' 인근을 지정해 활성화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문내면 동외리 일원에 있는 '우수영 골목형 상점가'는 5751㎡ 면적에 59개 점포가 활동하고 있다. 휴게·일반음식점과 미용실, 도·소매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됐다.

골목형 상점이 지정 대상은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다. 일정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구역의

특성, 상가의 규모 등을 심의해 지정하게 된다. 골목형 상점으로 지정되면 운수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고, 경영환경 개선·판촉 지원 등 국·도비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우수영 골목형 상점가는 올해 전남형 골목상권 첫걸음 지원사업에도 선정됐다. 이 사업을 통해 1억원을 투입, 우수영만의 특화된 볼거리와 상품을 제작하게 된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완도군, 여름철 자연재해 줄이기 총력

### 장마·태풍 등 대비 종합대책 보고회

완도군이 최근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 종합 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보고회에서는 장마, 호우, 태풍, 폭염 등 자연재해 예방책을 수립하고 부서별 역할을 점검하기 위해 부서별 종합 대책을 공유하고 중점 추진 사항을 점검하는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에 13개 협업 실무반을 편성해 기상특보 시 비상근무하는 등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13개 협업 부서는 재난 상황 관리, 긴급 생활 안정,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 시설 피해 응급 복구, 교통 대책, 환경 정비, 자원봉사 등을 맡는다.

폭염 대비 전담반을 9월 30일까지 운영해 특보 발생 시 재난 도우미가 취약계층 방문 또는 전화로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무더위 쉼터도 76곳을 운영한다. 또 울여름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가 잦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 도로 빗물받이 정비, 하수관로 준설, 상수 침구 수역 정비 등을 완료했다.

산사태 취약 시설과 급경사지, 재해위험 지역 및 풍수에 피해 우려 지역은 주기적인 현장 점검을 할 예정이다.

양식 시설이 많은 지역 특성상 사전 대응이 중요하므로 유해성 적조 예방 및 초동 방제에 힘쓰고 고수온 대응 장비 지원, 양식 시설물 보수·보강과 안전 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진도군 체험·먹거리 공간

### '썬나부네 흥나는 놀이터'

진도군은 오는 22일 오후 1시 진도군 실내체육관에서 '썬나부네 흥나는 놀이터'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썬나부네 흥나는 놀이터'는 진도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체험과 먹거리 공간을 마련했다.

'흥나는 거리조성 사업'의 하나로 지난해 이어 올해도 행사를 진행한다. 이달 22일부터 오는 10월까지 다섯 가지 주제를 담아 펼칠 계획이다.

22일 열리는 첫 행사는 '가족을 소재로 진행한다. 어린이가 뛰놀 수 있는 '에어바운스 놀이터'와 비눗방울 공연, 명랑 운동회 등이 펼쳐진다.

사진 촬영 공간과 팝콘 시식, 인플라와 그리기 등 체험과 먹거리 공간, 예술공방도 만날 수 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kwangju.co.kr



지난해 진도읍에서 열린 '썬나부네 흥나는 놀이터'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뛰놀고 있다. <진도군 제공>

## '목포형 대중교통 체제' 본궤도... '공영버스' 연내 도입

### 시내버스 양도양수 210억원 합의

### 노선권 매입 이르면 다음달 마무리

목포시가 시내버스 노선권 매입을 이르면 다음 달에 마무리함에 따라 '목포형 대중교통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목포시는 지난 3월 시내버스 운수 업체, 목포시의회와 노선권 양도양수 금액 210억원에 합의함에 따라 이르면 7월, 늦으면 8월까지 노선권 매입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목포시는 '공영버스' 체제를 연내 도입하기 위해 '목포형 대중교통 체제' 구축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목포시 공영버스'는 공영버스 직영사업(공영제)과 공영버스 위탁사업(준공영제)으로 나뉘

다. 목포시는 대중교통과를 신설해 공영제와 준공영제 '혼합형 운영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노선 공영화 추진과 함께 시내버스 운행 효율화를 위한 노선 개편은 지난 2월 말부터 시행됐다.

10분 간격 간선형 노선(47개)과 30분 간격 지선형 노선(47개)을 구분한 것이 특징이다. 개편 노선 안은 시내 8개, 시계 외 7개, 남만 3개로 구성됐다.

시내버스 이용자 수는 개편 전보다 10% 증가하고, 연료 충전량은 10% 줄었다고 목포시 측은 설명했다. 버스 1대당 1일 운행 거리는 20% 감소했다.

노선 개편 이후 발생한 민원 발생 건수는 올해 3월 1837건, 4월 771건, 5월 390건 등으로 감소 추세다. 목포시는 노선개편 이후 접수된 시민 불편 사항을 반영하고 전통 시장 접근성과 통학 기능을 보강해 이달 말 미세 노선을 조정할 계획이다.

노선 개편 이후에 축적된 자료를 기반으로 표준

원가를 고도화하고, 공공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사업권을 4개로 구분할 계획도 세웠다.

목포시는 운영체제 전환의 핵심으로 1일 2교대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버스 운전기사의 피로도와 사고 위험을 줄여 시민들의 시내버스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꾀했다. 표준원가와 사업권, 1일 2교대 도입 계획이 확정되면 운수종사자와 사업자 대상으로 사업계획안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공영버스 도입에 따른 요금체계 정비, 공공 기반시설 조성 등도 차례대로 추진한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시민, 시의회 등 목포시 전 구성원의 관심과 성원 속에 '목포시 공영버스' 제도가 착실히 준비되고 있다"며 "우리 시 공영버스가 전국 최초로 넘어 전국 최고의 대중교통이 될 때까지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아느냐/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